朝鮮日報

發行兼編輯人 方應謨 / 印刷人 / 發行所 서울特別市 太平路一街 朝鮮日報社

全民族의 哀悼裡에
昨日 白凡先生永訣式嚴修
城東原頭에 數十萬이 參集

半世紀를 祖國光復의 一念으로 海外에서 苦鬪하고 逆境과 荊路에 處해서도 民族에게 光明을 주어가며 解放又國以後에도 如意치못한 國際情勢의 制約下에 祖國의 和平統一을 爲하야 獻身하다가 去二十六日 千萬意外에도 同族의 兇彈으로 七十四歲를 最後로 故人이된 大韓民國臨時政府主席 白凡金九先生의 國民葬儀는 三千萬同胞의 血淚와 哀痛속에 全世界各民族의 敬虔한 弔意를 바다가며 六日서울運動場에서 嚴肅히 擧式되였다

場內正面祭壇에는 「七十四年大衆如山國家」「三千萬衆哀淚成海」「失民族指導者」「氣壯山河」「乾坤黑沉」「壽節千秋」「光復巨星」「民族先覺」「英烈長存」等의 輓章이 先生의 人品과 業績을 讚揚하며 祭壇左右下段에는 政府要人과 外國使臣 國務總理以下의 政府要人과 外國使臣 喪主服人葬儀委員들 그리고 運動場에 各界人士는 가운데 葬儀行列의 先頭가 午後一時廿分 式場에 到着하여 先生의 靈柩를 正面位置에 奉安하여 二時十分 朴允進氏司儀로 永訣式의 式典은 開式되어 儀仗兵이 發하는 二十四發의 弔砲가 天地에 震動하고 國旗에 對한 敬禮 愛國歌合唱에 이어 陸海軍合同軍樂隊의 哀樂이 끝나자 式順에 따라 葬儀委員長 吳世昌氏의 式辭를 總務部長 柳林氏가 代讀하고 柳林氏가 先生의 略史를 울며 바치나오는 悲慟에 맥혀가며 告하였다 이어 弔歌合唱이 있은後 嚴恒燮氏의 祭文朗讀이 있은後 李大統領의 弔辭를 李哲源公報處長이 代讀 副統領의 弔辭를 李始榮 이 代讀하고 民聯主席金奎植 ... 一同拜禮 九氏의 焚香 ... 花 一同拜禮 ... 한群衆의 눈물을 자아냈다

吳世昌氏式辭

여러분 이제로부터 國民葬委員會에서 故白凡金九先生의 永訣式을 열게되었음을 이에 宣言합니다 百萬國民이 우는낯으로 白凡先生을 마지막 한것이 어제 같은데 아게 서울運動場은 今日에 눈속에든 白凡 永訣을하게되니 痛歎不已 白凡先生은 祖國을 爲하여 거룩하게도 祭壇에 오롭니다 草木이 다 할 바 없으나 이 할 말이 ... 永訣에 목 노코 울어 여러분 ... 여러 學生 婦女 農工商 國家 의 構想을 喪失한 우리는 무엇으로 이를 補充하여 祖國統一에 이바지하려하나 두가지 努力이 있다

一、 舍弃 마음을 排除하고 白凡先生의 愛國精神을 繼承하여 第二第三白凡이 나오게할것

二、 悲哀를 抑壓하고 統一事業에 매진하여 白凡遺業을 達成함으로서 白凡先生의 肉身은 떠났으나 白凡先生의 精神은 ... 매장합시다

白凡先生 靈前에 애끊는 各界弔祭文

光復에 功動至大
李大統領永訣式에 弔辭

지난二十六日 白凡金九先生이 凶變을 當하신報를 접한以後로 나는오늘까지 슬픔을 막을수 없고 痛嘆함을 禁할수 없는바 입니다 우리 三千萬民族이 다아다시 白凡金九先生은 四十年동안 祖國光復과 民族解放을 爲하야 晝夜쉬지 않고 海內海外에서 몸과 마음을 바치 싸워온 革命愛國鬪士입니다 特秀한 革命家요 過去臨時政府主席인 白凡金九先生을 一오늘 解放된 大韓民國國民이 손으로 殺害하였다는 것은 우리가 文明國進하는 國民으로써 世界에 얼굴을 들기어려운 것 만아니라 自主獨立의 神聖한 事業을 遂行하는 이마당에 있어서 民族의 恨 이어고 國家의 損이 될뿐아니라 한것을 생각할때 痛嘆 마나한것을 생각할때 痛嘆함이 이에 더할바 없을것이다 더욱 三千萬同胞가 한결같이 머욱 三千萬同胞가 한결같이 이 宿願하는 南北統一의 曙光을 비치고 이 政府가 三八線을 보지못한채 이 世上을 떠나 시게된것은 實로 우리 同胞가 다같이 哀痛히 너기지아니할수없는바입니다 이 哀痛한 마음을 永遠히 紀念하기爲하야 모든 同胞는 祖國光復의 業績을 더욱 鞏固하야 國家萬年大計에 다시금 그 못침이 없기를 盟誓하며 그 靈前에 간절한 뜨거운 눈물로 送死無限의 鎭魂을 삼는 同時에 그 遺族과 함께 白凡金九先生의 永遠한 冥福을 가슴깊이 비는바입니다

檀紀四千二百八十二年七月五日

大統領 李承晩

萬事已矣!
李副統領弔辭

金九先生永訣式에서의 李副統領의 弔辭는 다음과 같다

未死人李始榮은 故白凡金九先生靈前에 이 訣別의 辭를 드리렴에 너무抑塞興奮하므로 條理있게 말할수없다 先生으로더부러 同苦同樂 三十星霜이 異他日別하였거니와 優劣을 말하자면 忠於國 孝於親의 여섯字가 先生의 大節이오 其他瑣屑한 ... 歇 伏惟尙饗 ... 先生의 美德은 先生의 特徵이나오 사람이以上 過誤가 없을수없다 先生을 通하여 다 ... 차오는 難局에 以友輔仁의 缺乏을 스스로 느껴왔든것이다 오늘날이 마당에 萬事已矣라 이말을 가리마치며 一掬의 熱淚를 靈前에 뿌리나이다

明政會弔辭

嗚呼 白凡老先生 先生은 天資가 英豪明哲하시고 志食하사 海內外로 ... 春風秋雨 五十年 ... 運動의 始作이시도다 伊來 先生의 救國 사업을 하심이 先生의 救國 고討敵의 策을 親히 運籌하 시 ... 의 壯烈한 血盟을 決하시 生은 於是乎 ... 에 仁한 ... 光을 洞察하시 先 ... 民族이 一朝 犬羊島夷의 손 聞不容髮이라 五千年 祖國 甚해져서 國家危急之勢가 夷의 放肆橫行은 날날이 는 正히 艱難의 一路이며 島 衝天之勢이시다 當時國步 하매 先生의 義氣는 實로 屹立하사 國權恢復을 自任 來 空前絶後한 大義士로 生은 이로써 祖國五千年以 와 ... 를 獲得하셨도다 先 心胸에 이르켜 世界의 散 天下之快感을 全國同胞의 一奴를 打殺하시매 實로 리라 繁盟하시고 果然倭敵 叛逆之敵은 吾手로써 討滅하 憤忠義之心이 激發하사 國 義의 先覺者이시라 悲憤 만 元惟 ... 이시며 大 思想涵養의 陶冶도 없었거 鄕里少年으로서 何等政治 際 先生은 弱冠에 未及한 ... 이 倭奴의 兇手로 이러나 하고 ...

悲痛속에 嗚咽
葬儀副委員長李總理

祭文

嗚呼先生님 이제先生의 靈前에 人山을 이루어 永訣式을 嚴肅히 擧行하고 群衆의 痛哭聲은 天地에 震動하는 이자리에 弔詞를 읽게되니 이어이한 作戲런가 平生을 한결같이 民族과 國家만을 爲하야 모든것을 다바치신 革命의 大先輩白凡先生이 지어 이제 ... 에 ... 하야 倚立해 있으나 先生님의 渾厚하신 生命있는 巨軀를 對할길없고 靈前에 고개숙여 귀를 기우리나 先生의 壯重하신 聲音을 드를길없으니 萬山草木은 그 香氣를 잃어 버린듯 森羅萬象은 生氣가 사라진듯 오직 悲壯한속에 잠겨 있을뿐이로소이다 先生님 人間으로서 生死가 있음은 運命의 定理일것이다 一生을 祖國光復과 民族의 幸福만을 爲해서 艱難苦鬪하 ... 民族의 巨木은 七十年風霜 ... 革命의 巨星은 ...

울고 다시 웁니다
韓獨黨代表 嚴恒燮氏

先生님 先生님 先生님은 가셨는데 무슨말슴을 하오리까 우리들은 다만 痛哭할뿐 입니다 울고 다시울고는 울뿐입니다 하늘이 先生님을 어둠속에 보내실적에 이民族을 救濟하라심이니 七十四年의 一生을 通하여 다만 祖國과 民族의 自由 … 爲하여 … 先生님 … 오직 一片丹心 … 三千萬 …

檀紀四二八二年七月五日 韓獨黨一同 嚴恒燮

統一完遂誓言
民聯 金奎植博士

檀紀四二八二年六月二十六日白凡金九同志는 不意의 兇彈에 悲慘하게 別世하였다 이 慘變을 接한 金奎植은 殘忍無道한 暴力的 蠻行을 無限히 惋惜하며 우리 國家의 運命과 民族의 將來를 爲하여 눈물을 흘리지아니할수없다 …

大韓民國三十一年七月五日

民族自主聯盟主席 金奎植

英香港防備强化

【런던五日發AP合同】英國軍隊輸送船「오—탄」號는 香港의 防備를 强化하기爲하여 四日「리—올」을 떠나 香港으로 向하였다 그런데 同輸送船에는 英國第三戰車聯隊및 多數의 航空隊員을 包含한 約二千名의 軍隊가 乘船하고 있다

比獨立三周紀念
퀴大統領演說

【마니라五日發UP共立】七月四日 比律賓各地에서는 獨立三周年을 마지하여 盛大한 紀念行事가 擧行되었다 이날 마니라에서 比律賓大統領 퀴리노氏는 比律賓의 解放을 祝賀하여 다음과 같은 演說을 行하였다

「東亞의 平和를 爲하여 나날이 要望이 아닐수없는 … 太平洋沿岸에 있는 모든 國民은 自由와 平和를 爲하여 一致團結하여야 한다 …」

共黨에入黨 生物學者入黨

【東京三日發AP合同】…

國府新銀元發行
對美弗一、七五元換算

【廣東五日發UP共立】國民政府는 四日부터 新銀元을 發行하였는데 新銀元은 一弗에 對하여 三‧七二元의 比率이라고 한다 그리고 一番 …

完全自治는 統一後
大統領地方自治法公布에 談話

地方自治法을 公布함에 際하야 李大統領 談話

民主國의 根本的要素는 百姓이 다스린다는 制度인 즉 君主나 專制의 制度와 反對되는 것입니다 百姓이 나라를 다스리는 法權利를 使用해서 나라일을 하는 人物을 自己들이 民主主義로 運營해서 …

共黨活動阻止法
日必要하면考慮

【東京五日發로이타合同】日本內閣書記官長 增田甲子七은 四日記者團會見席上에서 現在日本政府는 共産黨의 活動을 阻止시킬 法案을 考慮하고있지않으나 萬若 如斯한 法案이 必要하면 政府로서는 當然이에 對한 措置를 取할것이라고 다음과 같이 言明하였다 …

美經濟界不安
對外援助案에 影響

【워싱톤四日發INS合同】—존‧메저즈만氏記— 美議會當局은 諸般經濟的事態가 美國의 對外政策에 미칠 影響에 對하여 重大한 關心을 가지고 있다 …

英罷業一路激化
國家非常事態宣布乎

【런던五日發UP共立】四日英政府는 共産黨指導下의 埠頭罷業에 對한 「애트리」首相의 「國家非常事態」宣布에 依하여 政府軍隊는 罷業指導者들의 拘束을 爲한 ...

日歸還兵
歡迎會서衝突

【東京五日發AP合同】最近日新聞報道에 依하면 北海道에서 도라온 一千七百名의 歸還兵을 歡迎하기爲한 約四千名의 群衆은 京都驛에서 騷動을 이르키어 …

美海軍艦隊
親善次來韓

駐韓美國大使館 發表에 依하면 美國海軍巡洋艦一隻과 驅逐艦二隻이 來八日 正午에 親善訪問次 仁川港에 入港할 豫定이라는데 同艦隊는 十日仁川을 떠나 釜山으로 向할 豫定이라고 한다 …

日鐵道罷業
檢擧로對應乎

【東京三日發RP共立】東京鐵道局에 依하면 日本政府는 人員整理에 反對하는 鐵道勞組가 …

學生募集
水原三一中學校
募集人員 第一學年 一五〇名 / 試驗期日 七月十六日까지 / 出願期日 / 志願用紙 本校交付

學生募集
漢城中學校
募集人員 第一學年 約一五〇名 / 試驗期日 七月十二日 / 出願期日 七月二十日 / 志願用紙 本校交付 (願書無料)

今年度新學期 中學校教材
謹告 各地方의 中等學校와 서점에서 이제야 例年과 같이 不便이 없게 하겠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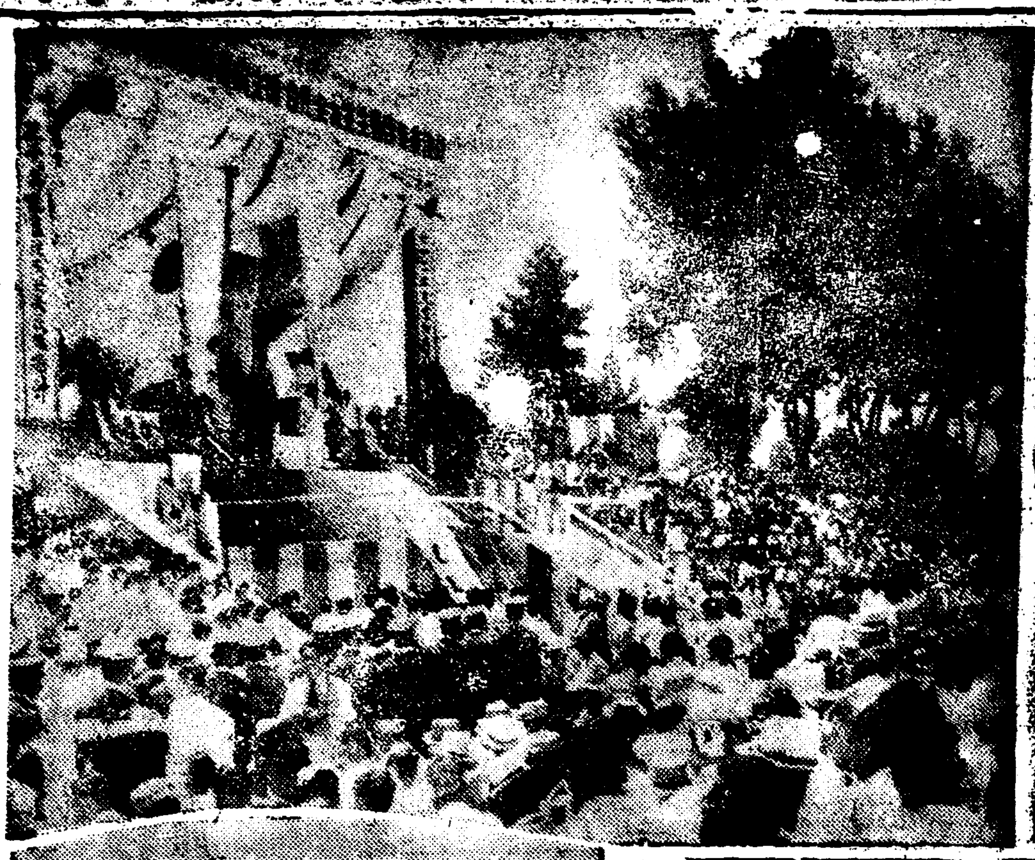
國語科 朝鮮語學會 鄭寅承 先生 編纂
國語1 (初級1年用) 定價二〇〇圓
國語2 (初級2年用) 定價二〇〇圓
國語3 (初級3年用) 定價二〇〇圓
★參考書 (1‧2‧3) 定價各五〇圓
朝鮮語學會 崔鉉培 先生 著 중등 조선 말본 (初級文法) 定價一六〇圓
★參考書 (고사 장해) 定價五〇圓
조선 말 본 (高級文法) 定價二〇〇圓
★參考書 (고수 참고서) 定價四〇圓
朝鮮語學會 張志暎 先生 編纂 가려 뽑은 옛 글 (高級讀文讀本) 定價二五〇圓

數學科 서울大學 崔允植 先生
중등 수학1 (初級1年用) 定價二八〇圓
중등 수학2 (初級2年用) 定價二八〇圓
중등 수학3 (初級3年用) 定價二八〇圓
중등 수학4 (高級1年用) 定價七〇〇圓
중등 수학5 (高級2年用) 定價五〇〇圓
중등 수학6 (高級3年用) 定價三〇〇圓
數表 定價五〇圓

社會生活科
이웃나라 생활 (東洋史) 高麗大學校 洪以燮 先生 著 定價二五〇圓
우리나라 생활 (國史) 서울大學 金聖七 先生 著 定價二八〇圓
우리나라 (地理部) 朝鮮地理學會 鄭洪憲‧李賓燮‧李富成 共著 定價二〇〇圓
먼 나 라 (地理部) 朝鮮地理學會 鄭洪憲 先生 著 定價二五〇圓
이웃나라 (地理部) 朝鮮地理學會 李富成 先生 著 定價二五〇圓
人類生活과 自然環境 朝鮮地理學會 李賓燮 先生 著 定價二〇〇圓

一般科學‧音樂
動物界 國立科學博物館 趙福成 先生 著 定價三〇〇圓
人類界 서울大學 崔臣海 先生 著 定價一五〇圓
高級物理 金鳳集 先生 著 定價二五〇圓
中等樂典 金聖泰 先生 著 定價二〇〇圓
心理學概論 서울大學 崔近植 先生 著 定價二五〇圓
哲學入門 金思雨 先生 著 定價二五〇圓

圖書出版 正音社 서울市倉貿洞一街三의二 電話本局 ②一八四一 振替서울二三四五



寫眞 永訣式光景 參列한外國使臣과要人들

喪主金信氏內外와長孫女貴子孃

山川草木도흐느껴우는듯 痛哭속에靈轝는發靷

뒤덮인哀愁에葬列도遲遲

三千萬은 삼가 冥福을비나이다 先生이여 고히가옵소서

고백범김구선생의 국민장(國民葬)은 참현제구일인 어제(五日) 전국민의 애도리에 경건하고도엄숙하게진행되었다 이른아침부터 경교장(京橋莊)앞 넓은전차길은 선생의마지막길을 보내려고 모여든사람들로 혼잡을 이루었고 육해군군악대 …

는 一백四十명을 단위로하여사대(四隊)를 (…)가 업숙이영여(靈轝)를 메우니 아-선생은가시고 가시는도다 영영 오지못할길을가시는도다 백천만번소리처 불러보아도 님이여 왜 아모대답도 못하시나이까? 동자(童子)꼬 울고 배발코 목메어울고 부터치고 가실때는 선생의영여를 에워싸고 하늘도 산도 흐느끼는듯 햇하얀 우상옥으로 감관 선생의 영여는 모렴하는군중사이로 말없이 거룸도무거웁게 조용히 영접(永昶)의 여정(旅程)에 올로는것이였다 (사진은경교장을떠나는광경)

저오 거기서 선생의 참변을듣고 바로서울로 뛰어올라왔읍니다」하며 한숨석인 하고념을하고 사라진다 경제구지가 간다음에 도 다른날과별해 조문객은 그치지않았다 선생의 유해나마마도 함께모시자 아효 때밝는 날이면 선생은영원히 우리앞에 계서 사라지시려니 우는것도 마지막 선생님뵈옵는것도 마지막 그동안선생을모시고있던 선생의제자와 동지들의가슴은 터질듯이애처러웠다 이날특히 경계가심하여 엄한시가되면서조문객의 발자취가끊어지자 한산해진빈소에 제일먼저뛰어들어 마음에서우러나는 통곡을하는것은 동명여학교의 생도들이 었다 선생의 유해 를 모시고 밤낮을 헤아리지않고 진실히 영전에 봉사하다가 이제는 그영구도 가실날이 오시다니 이여생도들은 영전에서 안없이흐느껴운다 그것은 여학생뿐이아니었다

길을한 나인송곡관은청소단에게애중어 그리고광복오로무개이져서 합석으로만은 가관(假棺)에옮기어진다 아호때동안의피로에도불구하고상주선(善)세의눈은 그곳에서떠며진출을맞다그리하여세벽세사결관이끝나자 선생의마지막인사를밝다는 경교장의동지들은 일제히빈소로몰려들어 소리높여조곡(弔哭)을울리였다 오전四시반에는 조완구(趙琬九)씨도나타나 영전에경건히 그리고 애통히배례하니통분과비애와 애통애쌓인경 …

애통속에도말할수없는 긴장에쌓여갔다 거족적인비애의 날을 조상코저 전올은팔두로 방방 곡곡에서 조기(弔旗)를내어걸아 선생의 명복을 빌며가두에는 거의전부의상가가문을닫고 마음속으로 조의를표명하는것이었다

그러나무릇 남자는다죽는것이어늘 선생인들어이 어그리하시랴 있으리오만은오직 선생이 그다지도염원튼조국의 완전통일을보지도못하시고 (…)를 남기고 쓸쓸히사라지는선생의넋을생각하고 누구나 눈물지지않는이없었다

이윽고열시四十분 선생의영구가 경교장을떠나 무작할을떠나는 시간은왔다

仁川서도哀悼式

고 백범선생의 영결을애모하기위하야 한독당인천시 특별당부에 설치되였든 불향소는 설치한지만 九일만인 지난四일하오三시에 종료식을 거행하고 인천에제주하는 당원들은 五일 장례식에 참석키위하야 상경하였다 동당간부 十여명은 인천에서집행되는 배범선생 예모식에 참석키위하여 머무르게되었는데 멀리 강화도등지에서도 조객이왔었으며 조위금도三십여만원에 달하였다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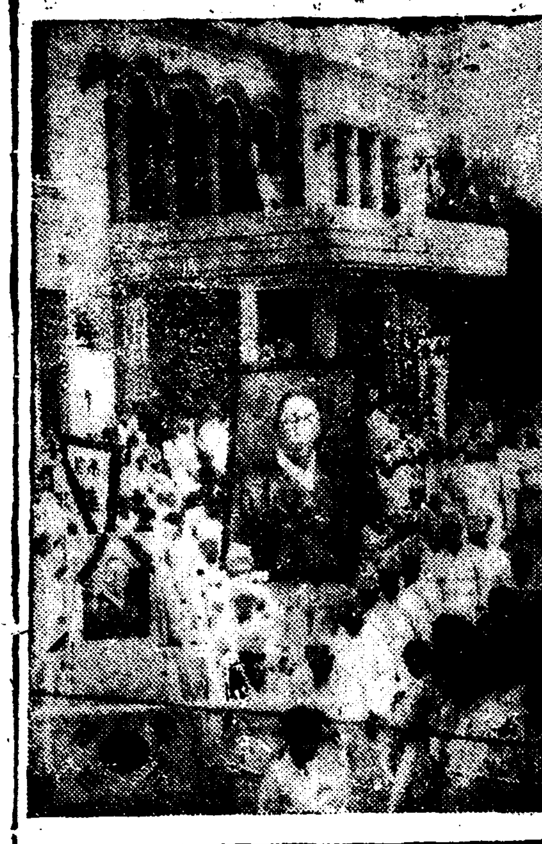
光州護喪所에 全南紡績서50萬圓

【光州】 고백범김구선생 영전에는 정향각처에서가 …

京橋莊의마즈막밤 哀惜도새로히結棺

고백범김구선생(故白凡金九先生)의 참변이있은지 아흐레 경교장(京橋莊)의 밤은 선생이마지막길을 떠나시는날의 전야(前夜)를 조상함인지 … 애수에잠기어갔다

밤 열시가되자 날마다 이맘때면 나타나는 마곡사(麻谷寺)의 정제주지(正齊住持)는 선생의 명복을비는 염불(念佛)을 영전에 올린다음 「선생께서 공주(公州)에 오신다기에 그리로나갔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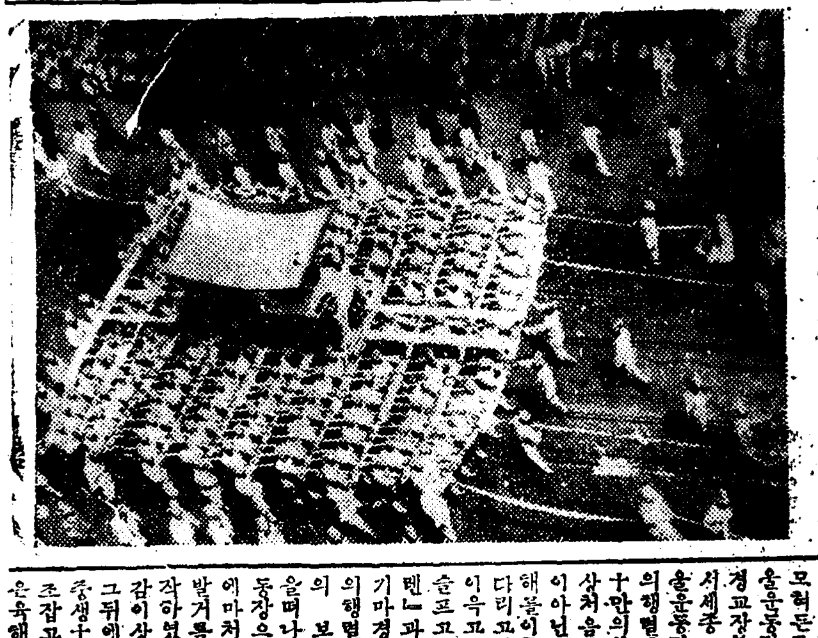
葬日맞이한 京橋莊아츰

"靑山아머리를숙여라"

弔詞도구슬퍼마조막禮拜

드디어 우리의애국자 고 김구선생의 가실날은 오고야말았다 마지막한밤을 지새워우며 눈도부처보지못한채 아침여섯시 도못되어 경교장에는 선생의장별례배를 보기위한 기독교의신도들이 앞마당에 빈틈없이몰어찻다 이윽고 七시二十분이 되자 선생의영구는 현관정면으로모시어나와 이규갑(李奎甲)목사의사회로 예배가시작된다 우선성경낭독이있은후박태준(朴泰俊)씨의지휘로 남대문교회성가대(聖歌隊)의 찬송가 …

가 안개낀호련하늘이 무겁고 슬프게흘리었다 내주의 집에는 거할곳 많으나 그곳과있는곳으로 가까이 가소서 이애조의 합창이흘리자마자 당시군중가운데서 一시에우름이 터저나왔다 그일생을 혁국의길에 몸바치오며 조국광복만을위하여 싸워오시다 하필흉적의손에 쓰러가시다니 … 「주와 동행하게하여주소서 우리의역사가있는 때까지 선생의이름을기리 전하리」 박재현목사(朴在賢牧師)의기도소리 비우처량하고이어 조사낭독으로들어가 「오호! 이강산에 주인이 잠들다 …」



몰여든葬送客으로 沿道는人山人海

구슬푼哭聲이한層더哀切

어제(五일) 고김구선생국민장의날 서울을비롯하여 전국각지는 애도인색으로 뒤덮이었다 이날서울거리는 관공청 학교 은행회사 음식점 각처장에서도 점에이르기까지 전부문을 닫고 가가호호에는 조기(弔旗)를달아 애도의뜻을표하였다 서울을비롯하여 인천 시흥 고양각군에서 모혀든군중은 거리로 서 … 그리고멀리 남선각지에서 …

安康暴騰農地 一千萬圓被害

【大邱】지난六월二십一일 폭도의방화로 인하야 군피해를입은 안강읍(安康邑)의피해상황은 이미 보한바있거니와 동피해중 귀속농지관리국(…)측의 피해를조사코저 대구지방국총무과에 …

哭聲에對備하여 財産搬出訓練

不穩分子多數를檢擧

國民葬治安에金局長談

長湍郡南勞責任者 李文順을檢擧

嶺南一帶에慈雨

九時間에二十四미리

天津서日人 1… 小月尾島에收容中

水泳團束

梁基元精神異狀

金密輸出하려다 事前에發覺被檢

丑山面長面民葬

武道場開場

演劇部員募集

중앙기독청년회에서는 이번에 기독교도연극인을 양성코저 연극부를 설치하고 남녀부원을 모집한다는데 신청마감은 七월十五일까지며 부원이모이면 곧 연극강좌를개강하리라한다

新刊紹介

△「주간교통」第三十五號 交通部友會發行 非賣品
△「朝運」新錄號 株式會社朝鮮運輸發行 非賣品
◇商工經濟 六月號 大韓商工會議所發行 非賣品

社告

外務員 鄭 濤 右者社則에違反되는 行爲가有함으로 退社處分하은바 此後우리는 弊社와一切關係가無함을 茲에 謹告함

檀紀四二八二年七月三日

朝鮮日報社 忠南支社 白

今日小說休載

納凉 綜合演藝大會

☆國都가보내는 畫期的膳物의 第2彈! ☆두번다시못볼 多彩푸로! 藝苑界名人總動員!

★第1部★ ★第2部★ 탈의王國 ★第3部★ 名唱選集 ★第4部★ ★第5部★

6日부터 國都

政治學徒에게보내는最高權威書!!!

런던大學政治學敎授 라스키一著 大學敎授 張錫萬 譯

政治學原論

라스키一의 政治思想에關해서는 이제 재삼스러히 說明을要치 않는다。 政治學徒에게는勿論 政治에 從事하는분 政界로 出馬하려는분 政治란 무었인가?를 아시려는분은 누구나 할것없이 世界的最高權威書인 本書를 必히 精讀하시라!

◎本書의主要目次紹介◎

第一章 社會組織의目的
第一節 規模의變遷
第二節 政府의必要
第三節 國家의目的
第四節 國家와社會
第五節 政治的權力의本質
第二章 主權
第一節 主權의一般的性質
第二節 法律的主權
第三節 政治的主權
第四節 國際關係에있어서의主權
第五節 國家와團體
第六節 責任體로서의國家
第七節 協議體로서의政府
第八節 制限的要素
第三章 權利
第一節 權利의本質
第二節 權利와國家
第三節 特殊權利
第四節 權利의實現
第五節 權利와權力
第四章 自由와平等
第一節 自由의本質
第二節 自由의保護
第三節 自由와平等
第四節 國際的見解
第五節 自由와政府
第五章 民族主義와文明
第一節 民族主義의本質
第二節 民族主義와權利
第三節 國際主義의諸困難

四六豪華版·高級紙使用·220頁 값 400원·送料 60원

今日一齊發賣開始!

圖書出版 宣文社 發行

서울市唐珠洞45의2·電話光化門4325番·振替京城661番

各種新品高級時計具備

和信百貨店二層 時計部

手票紛失廣告

天友社

녹막염에神効藥은 慈母(자모)

大東醫藥研究所

朝鮮中學生徒募集

募集要項

募集人員 第一部中學第一學年 二〇〇名 第二部中學夜 新入生 第一學年 八〇〇名 補缺生 第一部 第二·三·四·五·六學年 第二部 第二·三·四·五·年學年 各若干名

入學願書提出期限 檀紀四二八二年七月二十日限

入式 檀紀四二八二年七月二十一日부터 三日間

入學願書其他用紙代 一〇〇圓要함

詳細來問

本校 서울市東大門區安岩洞山一〇의一五 (敦岩洞終點降車)

連絡處 서울市鍾路區一街和信앞 東一百貨店 (三層姜法律事務處)

暖房裝置·蒸氣機關·水利水道

一般鐵材·工事請負

技術·迅速 信用本位 株式會社 鮮榮工務店

서울市中區南大門路五街二五 電話本局(3)八四二七番

學風七月號 定價200圓

三大論文
彈劾制度論……朴一慶
재말의이모저모……金起林
世界人權宣言의成立……李相佰
李朝文人畫論……朴敬源
歷史와社會學……李之東
社會主義의自由像과奴隸像……金恩雨
演奏論……朴殷用
著作權과文化秩序……金斗洪
美洲의學者들……金載元
露西亞의文化와푸쉬킨……洪曉民
美國人과社會主義……韓春燮
神들은목마르다……金秉逵

乙酉文化社 發行